

아·태 마스터스대회 체육기자들에 집중조명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조직위(위원장 김관영)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85회 세계체육기자연맹(AIPS)총회에 9일 참석해 100여개 나라 220여명의 전 세계의 외신기자들 앞에서 전북을 알리고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막판 붐업 조성에 힘썼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체육기자연맹이 공동 주최하는 세계체육기자연맹(AIPS)총회는 1924년 파리올림픽 기간에 국제 체육기자들의 협력 강화를 목표로 창설된 153개국 회원 9,500여명이 상이 활동하는 전 세계 스포츠 미디어 행사 가운데 최대 규모의 행사로 국제 스포츠계 현안과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등을 토론하는 자리다.

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는 9일 오전 10시에 아시아스포츠기자연맹 시상식에 참석하여 대회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그동안의 대회 준비상황 등 브리핑에 이어 오후에는 김관영 조직위원장(전라북도지사)이 직접 세계체육기자연맹 총회에 참석해 전북도의 다양한 매력과 아태대회 전반에 대해 전 세계 외신기자들 앞에 알렸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관영 조직위원장(전라북도지사)은 "전 세계 최대규모의 스포츠 미디어 행사에 초청돼 전북도의 대표적인 국제행사인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와 새만금 세계잰버리 대회 등 전북의 매력을 전 세계의 외신기자들 앞에서 소개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고,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이후에도 국제스포츠행사 유치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전북도의



9일 김관영 도지사가 서울 소피텔 엠베서드호텔에서 열린 2023 세계체육기자연맹(AIPS)총회를 찾아 지아니 멜로 세계체육기자연맹 회장(이탈리아) 등 전세계 기자들에게 2023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 및 전북을 홍보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정회돈 아시아체육기자연맹 회장, 지아니 멜로 세계체육기자연맹 회장, 김관영 도지사, 양종구 한국체육기자연맹 회장) (사진=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 제공)

조직위, 세계체육기자연맹 총회서 대회 막판 붐업 조성 힘 써 김관영 도지사 "국제스포츠행사 유치 노력 전북 위상 높일 것"

위상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18년째 세계체육기자연맹을 이끌고 있는 지아니 멜로(Gianni Mello, 이탈리아) 회장과 국제대학스포츠연맹(IFSU) 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레온즈 에데르(Leonz Eder, 스위스) 등이 참석하고, 2023전북아태

마스터스대회 개막식 성화봉송 마지막 주자로 참석하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 출신의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 위원 등 국제 체육계 인사들이 참석해 스포츠를 통한 연대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편 세계체육기자연맹 소속 기자

중 아시아지역 외신기자 등 15명이 2023 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 대회 개최식에 참석하기로 하는 등 대회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12일부터 20일까지 전북도내 14개 시군 일원에서 25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진다. 전세계 71개국 1만4,177명이 참가하여 역대 대륙별 마스터스대회 중 최대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

/김재훈기자

플코스 300회 완주 '화제'

익산시청 최석기 주무관, 군산국제마라톤대회서

익산시청 청소지원과 최석기(59) 주무관이 지난 4월 9일 열린 군산국제마라톤대회에서 플코스 300회를 달성해 화제다. 최석기씨는 2006년 마라톤에 입문하여 16년간 매주 쉬지 않고 전국의 주유를 누렸다. 2007년 4월 이천도자기 마라톤대회에서 첫 플코스를 완주했다. 그해 11월 고창마라톤대회에서 아마추어 마라톤에서 꿈의 기록인 서브-3(플코스를 세 시간 이내에 완주하는 일)를 2시간 57분 53초로 성공했다.

그의 서브-3 최고 기록은 서울국제마라톤대회에서 세운 2시간 49분 41초다.

부안 위도에서 나고 자란 최석기씨는 그저 달리기 좋아 42세의 늦은 나이로 마라톤을 시작했다. 하루도 운동을 빼먹지 않는 철저한 자기관리와 의지 덕분에 플코스 300회라는 뜻깊은 기록을 세울 수 있었다고 말한다.

열정의 마라톤러인 최석기씨는 "마라톤(42.195km)은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이지만, 도전에 대한 성취감이 크고 건강까지 주는 유익한 운동"이라며, "앞으로도 건강



이 허락할 때까지 달리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는 멋진 포부를 밝혔다.

한편, 올해 12월 퇴직을 앞둔 최석기 씨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라톤의 매력을 알리고 싶어 광화문 페이스메이커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오는 14일 익산시 일원에서 열리는 전북 아태마스터스 대회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익산=이재훈기자

**페이스메이커 : 마라톤에서 다른 선수를 위해 속도를 조절하며 대회에서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도록 돕는 사람

동학농민혁명 기념 전국 틀림 대항 볼링대회 개최

제129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 전국 틀림 대항 볼링대회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정읍시 덕원 볼링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정읍시볼링협회가 주관하고 정읍시체육회가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볼링 선수 700여명이 참가해 그동안 쌓아왔던 실력을 뽐냈다.

경기는 3인조 단체전 및 개인전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1인당 3게임을 치른 후 합산한 점수로 최종순위가 결정됐다.

3인조 단체전 경기에서는 대전팀스킵이 우승의 영광을 안았으며, 정읍시 광주팀스킵이 각각 준우승과 3위를 차지했다. 개인전 경기에서는 충청대빌스킵의 정명진 선수가 우승의 트로피를 수상했다.

광주팀스킵의 윤선미, 정읍단풍A팀의 유순열 선수가 각각 준우승과 3



위를 차지했다.

이화수 정읍시장은 "갈고 닦은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겨뤘 인상하신 모든 분께 축하의 말을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볼링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회식에는 김석환 정읍시 시의원, 최규철 정읍시 체육회장, 김현정읍시 볼링협회장 등이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역체육 발전 · 저변 확대 꾀한다 | 대한체육회-전북(시·군)체육회, 간담회 개최

대한체육회와 전북(시·군)체육회가 전북 체육 더 나아가 한국 체육 발전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9일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이날 전주 한 음식점에서 지역체육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대한체육회와 전북(시·군)체육회의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체육회는 국가 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 및 경과 생애 주기 스포츠활동 지원 추진, 스포츠클럽 관리체계 구축, 2023년 국내·외 주요 대회 현황 등을 보고했다.

또 전북을 비롯한 지방체육회의 주요 현안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지자체 조례 개정 현황 △지방체



9일 지역체육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대한체육회와 전북(시·군)체육회의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전라북도체육회 제공)

육회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 추진 △생활체육지도자 인사·노무 업무 안내 △지방체육회 포상·교육 등

도 안내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체육인들의 복지를 높이고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 체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체육인들이 힘을 뭉쳐달라"고 말했다.

정강선 전북체육회장은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기흥 회장을 비롯한 대한체육회에 감사를 전하며 전북 체육 발전에도 더 큰 힘이 돼 달라"며 "체육인들이 어디까지든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체육인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전북을 비롯한 전국 시·도체육회를 들며 순회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뉴시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세요.

